



추억 잡으러 나간다~ 오늘은 나도 로빈훗

예천 세계활축제 10월 13~16일

경북

양궁의 메카, 국궁의 본고장 예천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제3회 예천세계활축제'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한천체육공원에서 펼쳐질 활축제는 예천의 활 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개최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활 관련 축제이다. 이번 축제는 국궁·양궁·목궁·석궁·세계활쏘기 체험, 활사냥 체험, 어린이 활쏘기 체험, 다양한 나라의 활 전시, 활·화살 만들기 수제작 전시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한 체험거리를 통해 단순히 관람하는 축제에서 벗어나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게임 '큐피트의 화살'

파트너 머리 위 과녁 맞추고 선물 가족에게 화합을... 연인에게 사랑을

이번 축제는 올해 주제인 '큐피트의 화살'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양한 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총 세 가지로 준비된 큐피트의 화살 프로그램은 평소 아이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부모님에게 화합을,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이성 커플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아가자기하게 꾸며졌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마치 소설 '로빈훗'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파트너의 머리에 사과 모형 스펀지를 올려놓고 반대편에서 다섯 발의 안전화살을 쏘서 맞추는 경기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활을 쏘는 참가자가 화살을 쏘면 반대편에 있던 참가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벨크로로 제작된 조끼에 파트너의 화살을 붙이는 게임이다. 총 다섯 발의 화살을 쏘서 3개 이상 붙이면 통과할 수 있다. 첫 번째, 활쏘기에 자신이 없는 이들도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서 좀이나 자신의 장기를 선보이던 호응도에 따라 2, 3개의 화살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프로그램 '내 파트너를 맞혀라'는 남녀 커플 간의 경기다. 활을 잡은 참가자가 여러 명의 사람 중에 자신의 파트너를 활로 쏘서 맞히면 선물을 주는 게임이다.

즐거거리

몽골·부탄 등 20개국 30명 글로벌 활 시연 활 서바이벌·콩고팀 공연·활 전시 등 풍성

세계적인 축제답게 올해는 몽골, 부탄, 중국, 일본, 스리랑카, 터키, 프랑스, 폴란드, 영국 등 20개국 30여 명의 글로벌 전통 활 시연단이 참가한다. 또 활의 고장 예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과 프랑스, 터키, 인도네시아 등과 MOU를 통해 예천의 전통 활쏘기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교두보도 함께 마련한다. 활 사냥체험을 비롯 국궁·양궁·석궁·세계 활 등 활쏘기 체험, 활 서바이벌 등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행진, 불꽃 쇼, 아프리카 콩고팀 공연, 안데스 공연, 경북도립무용단 공연, 키다리 버스킹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특히 활 서바이벌 대회는 서바이벌과 피구 규칙이 섞인 하이브리드 스포츠로 인기만점 게임이다. 참가자들은 특수 제작된 스펀지 화살을 상대방에게 쏘아 탈락시키고 제한시간까지 많이 살아남는 팀이 이기게 된다. 총 44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이 밖에 세계 20개국의 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활쏘기 시연,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구성해 축제의 재미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세계 활전시관에서는 세계 각국의 활을 통한 문화 소개, 예천의 활 소개 등 3가지 주제로 나뉜 흥미로운 활의 역사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매일신문 김영진 기자 solive@msnet.co.kr



평주도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킬러 콘텐츠 중 하나인 활 서바이벌.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경품 응모 기회를 준다.



파트너의 머리에 사과 모형 맞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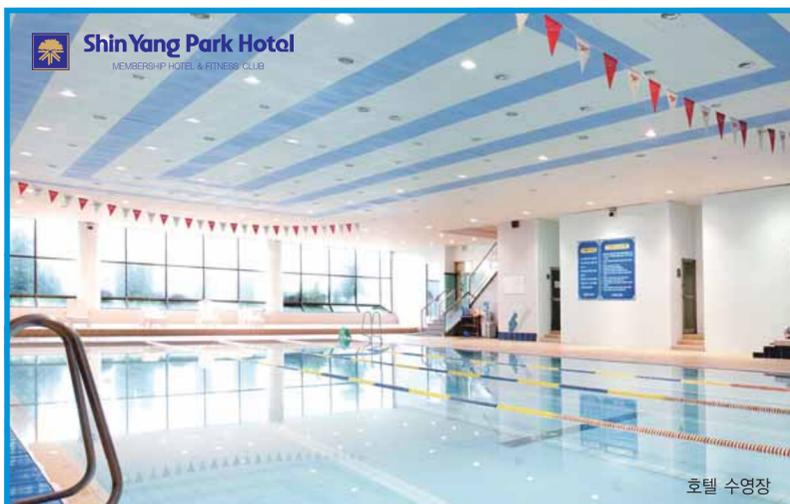
예천군 '세계전통활연맹' 창설... 국제교류 3년만의 결실

프랑스·터키·인도네시아 활 도시 자매결연... 중앙아시아 활연맹협과 MOU

예천군은 올해 예천세계활축제 기간 동안 활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열고 국제 네트워크인 '세계전통활연맹'을 창설한다. 그동안 예천군은 해외 각국을 방문해 교류활동을 펼쳤고 올해 드디어 3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된다. 지난해 활축제 추진위 관계자들은 프랑스, 터키, 인도네시아의 활 도시 간 자매결연을 성사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5년에는 몽골, 부탄을 방문해 활을 이용한 문화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국가는 중앙아시아의 활 문화를 선도하는 터키다. 터키 이스탄불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으로 동로마 제국의 문화와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활 관련 문화

제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세계문화유산도시이다. 이 가운데 예천군과 전통 활 활성화에 위한 MOU를 맺은 터키 베이올라시는 전통 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3년부터 '옥졸라드 바흐 활 재단'을 설립해 매년 세계전통활쏘기 대회를 개최하는 활의 도시다. 예천군은 터키 베이올라시를 중심으로 17개국 회원을 가진 중앙아시아 활연맹 협력체인 '투르크소이 연맹'과 전통 활 문화 교류를 위한 MOU를 추진하게 된다. 또 예천군은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 차관과 족자카르타주 부지사를 만나 올해 예천세계활축제 참가 및 세계활연맹 참여를 약속받았다. 앞서 프랑스에서는 활의 도시 레피발루아시를 방문해 부르노 포티에(Bruno Fortier) 시장과 면담을 갖고 도시 간 네트워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활 콘

텐츠, 세계전통활연맹 창립, 그리고 예천세계활축제 참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예천군은 이 같은 해외 방문 성과를 통해 올해 예천세계활축제 기간 중 세계전통활연맹을 창설하고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예천의 활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또 각종 국제대회가 열리는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인근에 전 세계 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활 박물관과 필드아치리 경기장, 양궁·국궁 활쏘기 체험장 등을 설치해 국내 최대 규모의 활문화단지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세계전통활연맹은 세계인의 활문화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인적 자원을 구축하는 세계 유일의 전통 활 관련 기구"라며 "해외 방문 성과를 토대로 올해 예천세계활축제 기간 중 예천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신문 김영진 기자 solive@msnet.co.kr <사진=예천군 제공>



호텔 수영장

신양파크호텔 여름 패키지

스탠다드룸 1박 + 조식 2인 + 사우나, 수영장 2인

₩110,000원 (세금포함) 객실예약 228-8000
 평주일보 제휴 패키지로 예약주시는 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신양파크호텔과 함께하실 임대업장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 ▶ 임대업장 : B1 노래방 / F2 한식당
- ▶ 상담 및 문의 : 062) 221-4172 총무과
- *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